

수입개방에 맞서 최신 현대화 돈사 설치한 양평양돈단지

— 생산비 25% 절감 목표 —

— 취재 : 추용진 기자

양돈 생산비는 어떻게 절감해야 하나? 분뇨처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최근 양돈장의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양돈단지가 관심을 보이게 된다.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에 소재한 양평양돈협업단지(회장: 엄원섭)가 바로 그곳이다.

양평양돈단지는 지난 '92년부터 '국제 경쟁력 있는 양돈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은 물론, 위생돈육 생산과 완벽한 분뇨처리 없이는 안된다'고 생각한 본회 경기도 광주지부 회원들이 3년동안 각고의 노력끝에 양돈단지 조성 작업을 끝내고 지난 1월 10일부터 입식을 시작, 현재 2천여두가 입식된 상태이다.



양평양돈협업단지 유기질비료공장 입구

6만평 부지에 10명의 회원으로 총 50여억원을 투입하여 양돈시설을 현대화 하고 청정돈육 생산의 기반을 갖추고 있는데다 돼지의 돈분과 돈뇨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비료공장까지 건설하고 있다.

10개의 단지로 구성된 양평단지는 완전 올인, 올아웃(All in, All out)시스템의 현대화 된 시설에다 분뇨처리의 경우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달리 분뇨를 파이프관을 통해 정화조(분뇨저장탱크)에 모아 화학적 반

응을 시켜 완전한 유기질 비료를 5분만에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하루에 약 25톤 정도의 비료생산을 목표로 삼고있다.

양돈장과 연계돼 있는 유기질 비료 공장을 국내에서 처음 선을 보이는 것으로 그동안 양돈농가의 고민거리였던 돼지 분뇨처리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돈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임원섭회장은 “낙후된 우리나라 양돈산업(1차산업)을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양돈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이 같은 단지를 조성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특히 “무투약 생산 라인으로 청정돈 생산과 공동구매로 생산비를 25%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양돈단

지 자체가 하나의 삶의 공간이 되게 함으로서 2천년대의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각각의 단지는 4~5개의 돈사로 분만자돈사, 육성사, 번식사로 구성되어 있다.

분만자돈사의 경우 5개의 분만돈방과 5개의 자돈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돈방 위쪽에 납작한 직사각형 모양의 환기창을 설계하였고 각방의 복도 끝에 환풍기를 설치하여 원활한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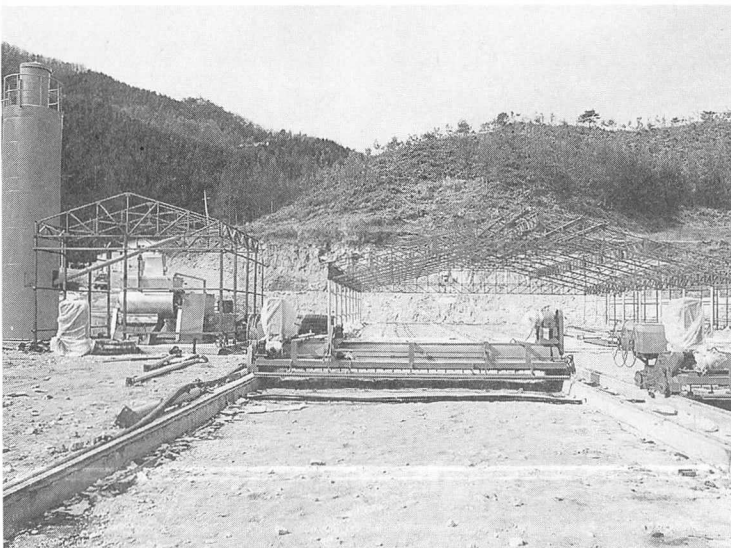


임원섭 양평양돈협업단지 회장이 단지 조성 동기를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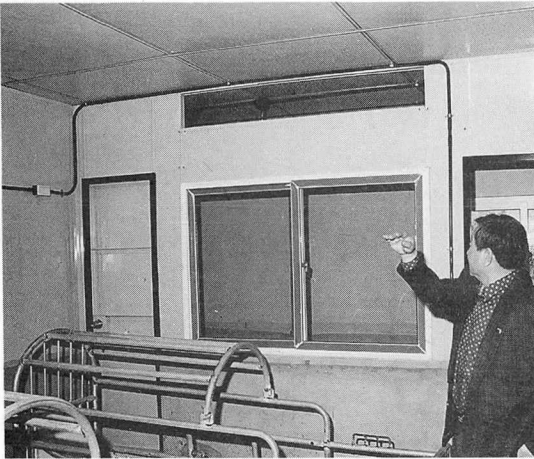
각 돈방에는 4개의 분만틀이 2열로 배치되어 있고, 돈방복도 끝에 배기굴뚝이 설치되어 있다. 습도조절과 보온 등 모든 것이 컴퓨터로 완전 통제되며(콘트롤러 박스)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콘트롤러 박스의 알람이 울리며 외부 스피커와 연결시켜 놓아 관리자가 돈사밖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도 즉시 이상 유무를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돼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돼지의 분만기록, 이유기록, 이동기록 등의 기록을 전산화 하여 그때 그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은 돼지를 출하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연간 최대



공사중인 돈분 유기질비료공장(분뇨가 파이프를 통해 분뇨저장탱크에 모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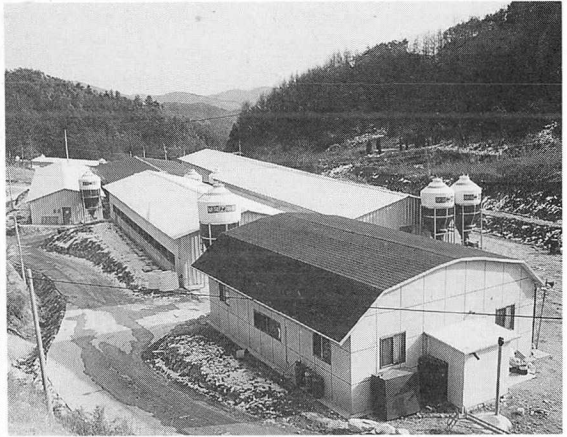
분만돈방에서 환기창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엄원섭 회장



분만돈방 바로 옆에 놓여 있는 자돈방



임산돈이 수용되어 있는 스톨사



10개 단지마다 1개의 가정집을 마련, 10명의 회원들이 편안히 쉴 수 있게 했다.(맨 앞쪽이 가정집)

2만두 정도의 돼지를 출하할 계획이고 앞으로 생산, 유통, 비료 공장 등을 운영하여 전문 Brand로 상품화 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엄회장은 “양돈산업도 이제는 소비자를 위한 양돈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소비자를 생각하는 양돈업이 되므로서 “도농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엄회장은 또한 “정부에서 양돈단지에 융자금을 지원해 줄 때 진정으로 1차산업(양돈)을 사랑하고 의지를 갖고 있는 농민들에게 융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 및 단체들은 양돈정책의 문제점들을 농민들의 대표로서 건의·요청해 주고 민·관과의 사이에서 중

계자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양돈 관련 조직체들간의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올해부터 모든 농·축산물이 개방됨으로서 농민들을 위축시키고 있지만 엄원섭회장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우리의 양돈산업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열심히 뛰는 참모습이 아닐까?